

11) 유도

오늘날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에 의하여 정리된 유도는 1909년 황성중앙기독교청년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지도는 초기에는 무관학교 출신 유근수가 맡았다가 나영수로 교체되었다. 1928년에는 기독교청년회 유도부가 유도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경기진행도 우리나라 말로 하였다. 1929년에는 동경 유학생 무도회 주최로 전국조선중학교 유도대회가 열렸고, 1930년 6월에는 연희전문학교에서 역시 조선중학교 유도대회가 개최되어 유도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31년에는 조선연무관이 개설되었고, 1932년에는 조선유도연합회가 결성되어 유도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다.

1934년에는 조선유도유단자회가 결성되었으나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도장이 폐쇄되어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 당시 각 지역마다 유도장을 개설하여 전국에 약 20개 정도 도장이 있었으며, 일제하의 모든 운동경기가 그랬듯이 유도인은 훈련 및 경기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느꼈다. 8·15해방 이후 조선유도연맹이 결성되어 또다시 우리의 유도 용어를 정립하고 지도자 강습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유도를 보급하였다.

순천에 유도가 보급된 시기는 1912년경 당시 일본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서정욱이 일본강도관에서 4단을 받아 고향인 장천동(현 천일장 자리)에 사재를 들여 순천연도관을 설립하면 서부터이다. 1916년에 순천연도관은 당시 전국 유도계 강호 개성호무관을 초청하여 시합을 가졌는데, 서정욱 관장의 문하생인 김소춘·서정선·정갑래·이화권 등이 가볍게 제압하여 이때부터 순천 유도의 명성이 전국에 알려졌다.

1940년대에 서봉진은 명치신궁대회에 출전하여 개인 우승을 차지했고, 서정선은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했다. 1951년 제32회 전국체전 일반부 개인전에서 서정현이 우승하였다. 1953·1954년에는 서정선·서봉진·배기철·이길섭·지원소·표남신 등이 전남대표로 출전, 준우승을 하였다. 한국전쟁 직후(1956~1962년) 순천중·고는 유도를 정규학습 과정에 포함시켜 신체를 연마하고 정신을 수양케 하였는데, 이때 지도는 순천중의 서봉진과 순천고의 지원소가 맡아 후배 육성에 많은 공을 남겼다.

그러나 1962년 이후 순천중·고에서 유도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유도를 수련할 도장이 없어 철도청의 빈 창고를 이용하여 유도를 보급하였지만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후 1970년대 후반 이 고장 출신인 한갑섭이 철도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유도선수 생활을 마치고 전국체전에 전남대표로 출전하여 95kg급에서 우승을 차지, 침체된 순천 유도의 활력소가 되었다.

그후 1984년 3월 순천 삼산중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한 임종안(유도 6단)이 그해 5월에 재학생 16명을 선발하여 유도부를 창단하였다.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전국유도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여 단체전 우승 및 개인전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는 등 전국 유도명문으로 부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유도선수 연계육성을 위하여 1988년 효천고에서 유도부를 창단하여 전국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는 등 상위 입상을 하였으나, 1992년 갑자기 팀이 해체되었다. 1993년 9월 임종안이 순천공고에 부임하여 1994년 5월에 유도부를 창단하여 선수 육성에 헌신하고 있다.

학교체육에 힘입어 이 고장의 유도선수 출신으로 전국체전 일반부 대표는 김양호·황창영·정필중, 대학부로는 문선귀·김종룡·신광호, 무궁화팀에 김희중, 상무팀에 강춘열 등이 활약하고 있다.

